



전문 출판인 육성 산실 “sbi 서울북인스티튜트”

국내 유일의 출판 전문교육기관인 서울북인스티튜트(원장 박은주 · Seoul Book Institute 이하 sbi)는 한국출판인회의가 의욕적으로 진행 중인 ‘출판편집인 양성 및 재교육 사업’을 구체화한 결과물이다. 런던 인스티튜트, 이탈리아의 파프리카와 같이 전문 출판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sbi가 올해로 개원 2주년을 맞았다.

글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현 직 출판사 대표 및 임원과 현장 경험 10년 이상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sbi의 교육과정은 철저히 실무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체 발간하는 교재로 수업이 진행되며 매월 교육프로그램 개발위원회를 열어 교육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한다. 개원 1주년이던 지난해 sbi는 아직 그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으로 분주했다. 세분화된 커리큘럼 개발과 신설 강좌 등을 연구하는 한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자체 사옥의 정비 등을 겸하며 1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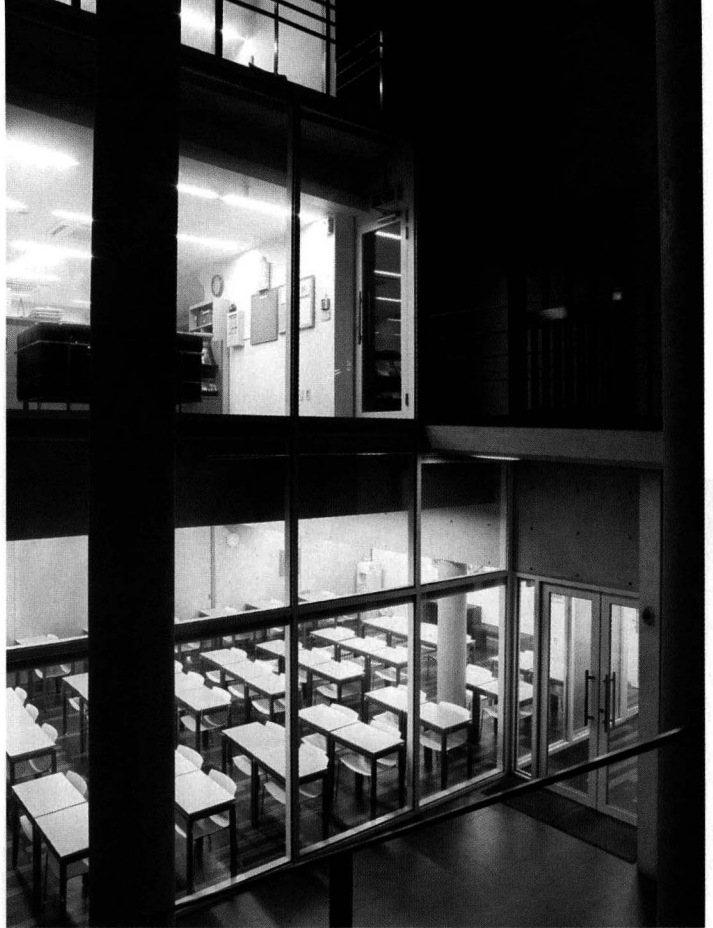
현장경험 노하우 전수하는 실무교육

“출판인회의는 sbi(서울북인스티튜트)라는 교육기관을 통해 좋은 인재들을 출판계에 공급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출판인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재교육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는 부분에 좀더 앞장서서 나가 뭔가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는 변화에 대한 대처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독서 진흥이 이뤄져야 합니다. 저희에게 있어 인재 양성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올해 초 신입 회장으로 선출된 이정원 (도서출판 들녘 대표) 회장은 sbi 운영을 출판인회의의 핵심 사업으로 손꼽았다.

sbi는 철저한 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통해, 졸업생들이 모두 별도의 인턴 기간 없이 출판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고 있어 탄력적으로 강의가 보완되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전한다. 최근에는 비회원사 교육생의 비중이 늘어 출판계 전반적으로 역할 범위를 확장하고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sbi 측의 설명이다.

“한 명의 교수 당 3-5명의 수강생을 맡는 책임제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까다롭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편집자 과정뿐 아니라 편집장 과정과 마케팅 부분도 전문적이고 깊이있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포괄적 교육을 해왔는데 요즘은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인력보충을 원하는 출판사들에게서 sbi 수강생들을 원하는 요청이 쇄도한다는 이 회장의 설명은 sbi가 출판계 전반적으로 그 운영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젊은 인재들의 출판계 공급과 기존 출판인들의 재교육은 출판인회의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출판계 인재풀 형성에 한발씩 다가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본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sbi 박은주 원장은 “체계적인 출판교육과 네트워크 형성 등 개별 출판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해준다는 면에서 출판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깊이있는 전문화 교육 지향

이에 따라 앞으로 sbi의 교육방향은 좀더 세분화 될 전망이다.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심도 깊은 교육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정원 회장은 수강생 증원과 프로그램 개발은 요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교육 장소가 협소하고 교수진 영입도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더 전문화시킨다면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대학의 출판학과와는 차별점을 가진 출판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양과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대학이 되겠죠.”

sbi는 올해 ‘교정·교열 인증시험 개발’ 사업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i의 출판계 역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출판교육과 네트워크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다만 인재양성에 그치지 않고 인적 자원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출판현장을 일구어야 한다는 전제는 출판계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

